

육계인 모여 화합을 다지다



전국 각지의 육계인들이 고성에서 다함께 뭉쳤다. 그 동안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늘 만큼은 모든 근심 벗어던지고 육계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모두가 웃으며 즐기는 시간이 되자는 취지 아래 육계인들이 모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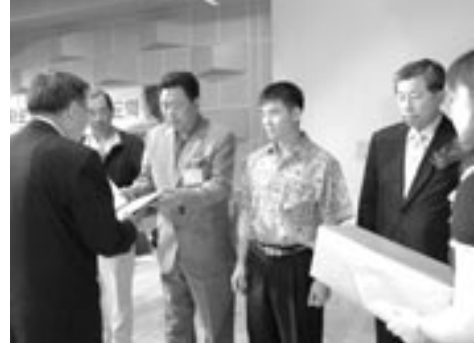
본회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장재성)는 지난 6월 1~2일 양일간에 걸쳐 경간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에서 '제 14회 전국육계인대회' 흥, 흥 개최하였다.

본회가 주최하고 육계분과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최준구 회장을 비롯한 장재성 육계분과위원장, 김영근 감사, 황수연 부산경남도지회장, 김영철 고성군부군수, 김명주 통영고성지구의원 등 여러 인사들이 참석하여 금일 행사를 축하했다.

장재성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해 국내 발생하지도 않은 조류인플루엔자로 과잉보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올해도 닭값 하락과 한·미 FTA 등 육계업계에 당면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이번 육계인대회를 통해 육계인들의 단합된 힘으로 어려움을 헤쳐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참석인사들의 축하 인사말과 이번 대회 추진위원장인 이상정 위원장의 경과보고가 있었으며 이후 양계산업 발전과 양계인의 권익보호에 힘써온 육계인을 위한 시상식이 거행되었다.





▲ 육계발전에 힘써온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감사패, 표창장, 의장상 등의 시상식이 있었다.

시상식에서는 (주)체리부로 김인식 회장, 고성군청 최봉호 계장이 감사패를 받았으며 당진육계지부 최치재 지부장, 대구경북도지회 류준희 육계분과위원장, 춘향농장 이재환 대표, 수동농장 김예배 대표가 표창장을 수상했다. 한편 경상남도의회 의장상에는 구자권 밀양시 부지부장, 류규식 경남도지회 이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후 2부 순서 세미나에서는 김상호 연구관(축산연구소 가금과)이 '한천양계산물 생산을 위한 사료 첨가제의 활용', 송창선 교수(건국대학과 수의과대학)가 '국내 닭 호흡기질병의 원인 및 대처방안', 허만성 교수(영산대학교 관광대학)가 '동북아 정세와 대한민국' 이란 주제로 강연하였다.



◀ 좌부터 김상호 연구관, 송창선 교수, 허만성 교수의 세미나 발표 장면

3부 순서에서는 체육관으로 자리를 이동해 뷔페식으로 식사를 하면서 육계인 노래자랑과 행운권 추첨 행사가 진행되었다. 최준구 회장, 장재성 위원장을 비롯한 각지부 대표자들이 나와 열창을 하면서 다함께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며 행운권 당첨자에게는 쌀과 필드에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독제 등이 상품으로 수여되었다.

한편 행사전에는 김영근 감사 및 고성지부회원들이 양계산물 시식코너를 마련 닭고기와 계란을 행사에 참석한 회원들에 제공하여 이번행사의 뜻을 더했다.

익일에는 이번 행사일정에 맞추어 고성에서 개최되는 세계공룡엑스포 관람을 끝으로 전국육계인대회를 성황리에 끝마쳤다.

